

■ 나는 이방인이다 [변신] 최윤영

• 카프카는 주류 사회의 시선과 인간 사회에 동화된 원숭이의 시선이 대립되는 상황을 첫 문장(“고매하신 학술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숭이로서의 이전의 삶에 대한 보고서를 학술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영광을 저에게 베풀어주셨습니다.”)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 [변신]은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탈출구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카프카 스스로 작가나 유대인이 되는 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카프카는 퇴화된 존재라는 상징을 빌려 사회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야 하는 자신을 상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이방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류의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방인에 대한 배척이 종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척임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고향을 감미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허약한 미숙아이다. 모든 곳을 고향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상당한 힘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전 세계를 타향이라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인간이다. --- 성 빅토르의 휴고

■ 고난의 운명을 사랑하라 [오디세이아] 강대진

.

■ 천국, 빛과 색으로 물들다 [신곡] 박상진

• 단테는 별 무리 없이 천국과 연옥을 여행합니다. 하지만 빛으로 가득 찬 천국으로 올라가자 단테는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절망합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도저히 빛의 세계를 볼 수가 없었던 단테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 그리고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 단테의 [신곡]에서 베아트리체는 그냥 여성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주는 것은 물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끄는 천사의 상징입니다.

• 단테의 [신곡]이 보편적인 이유는 그 안에 다루고 있는 주제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 예를 들어 정의, 사랑, 구원 또는 공동체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우리에게 삶에 대해 계속해서 날선 문제들을 던지도록 하는 일종의 도전 의지를 만들어줍니다.

•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글을 읽음으로써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 또 정의가 무

엇이고 사랑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단테가 돌아와 이 책을 쓴 궁극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 우리는 왜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가,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종숙

- 죽음이라는 인간 조건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것을 향해 인간이 과연 무엇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일은 반드시 [햄릿]이나 비극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세네카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신성에 접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그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의 몫일지도 모릅니다.